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제41대 장로 · 제21대 안수집사 · 제49대 권사 피택결정 및 교육실시

“이르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저운 것
과 염매가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
니라”(히 12:1~2) 지난 주일(3월 30일) 4부예배 후에 있었던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41
대 장로후보자 10명 및 제21대 안수집사 후보자 28명을 피택하였습니다. 또한 당
회에 위임하였던 49대 권사후보자 54명도 피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
만한 충현의 모든 세례교인들이 내린 믿음의 결정이었기에 공동의회는 은혜와 감
사로 찬탄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을 공동의회로 다시 모여 개표 결과를 알리려
하지만 <주간충현> 공고를 통해서 이를 대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택받은 일꾼들은 오는 개강예배(찬양예배 후, 베다니홀)를 시작으로 6개
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교육(4. 6.~10. 4.)을 받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벧후 1:10)는 말씀처럼 피택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위
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죄인입니다!”라는 참 회개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꾼으로서
의 첫 걸음을 뚫 것입니다. 피택자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벧전 5:1)

*피택자 명단은 본지 7면 참조

위임목사 동정 |

위임목사님이 제41대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모든 일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절기 저녁예배 시간변경 | (수요2부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4월 9일, 수요2부예배 시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

금요찬양집회 교육 좌석변경 | 4월 11일 시행 (본지 7면 참조)

말씀과 삶 ①

어떠한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6~16)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은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
다. 결국 그들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전 2:6~8)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마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관
한 지식, 훈련을 받았지만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던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다.(마
16:16~23) 우리의 경험, 지식,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
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전 2:14)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인 것이다. 성경에 매우 박식하였고 경건한 니고데모는 한밤 중에 예수
님을 찾아 왔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느
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도다!”라는 말뿐이었다. 이처럼 보혈
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종말은 죽음뿐이다.(롬 3:23) 자연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요 6:37)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롬 10:13)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보혈로 거듭나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이다. 신령한 사람은 영원
한 수령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찬양으로 찬탄한 은총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반드시 신령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전 2:15)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전 2:12)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령한 일을 분별
하는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전 2:13)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세
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요 15:19) 한때 고난의 십자
가를 거뒀던 베드로는 보혈의 은총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벧전 4:12~14) 신령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
용될 것이다.

중간에 속한 사람 우리 중에는 자연적인 사람도, 신령한 사람도 아닌 중간에 속한 사
람이 있다. 중간에 속한 사람은 곧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고전 3:1) 이 사람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누리려고 싶어한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
며, 때로는 하늘이 주는 신령한 은혜로 기뻐하기도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만든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동시에 인기를 누리려고 한다. 이 사람은 분
명히 가짜이다. 중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
람은 “예, 아니오.”가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로 가득한 사람이다.(엡
6:12) 우리가 진실로 보혈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버린
구습을 과감히 벗어야 한다.(엡 4:21~22)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육신의 정욕, 안
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진실로 회개하고 매순간마다 보혈의 은총
으로 신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엡 4:23) 하나님을 통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
음을 받아 흠과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엡 4:24) 이
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갈 5:16~17) 매순간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자. 이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신령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찬 407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다. 죽을 때만 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보혈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A WOMAN DISCIPLE NAMED DORCAS

⁽³⁶⁾Now in Joppa there was a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translated in Greek is called Dorcas); this woman was abounding with deeds of kindness and charity which she continually did. ⁽³⁷⁾And it happened at that time that she fell sick and died; and when they had washed her body, they laid it in an upper room. ⁽⁴¹⁾And he gave her his hand and raised her up; and calling the saints and widows, he presented her alive. ⁽⁴²⁾It became known all over Joppa, and many believed in the Lord. ⁽⁴³⁾And Peter stayed many days in Joppa with a tanner named Simon.

(Acts 9:36-43)

After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e primitive church began to grow. Jerusalem's congregation members escalated into the thousands, and the Christians in nearby regions also expanded, "So the church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enjoyed peace, being built up; and going on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it continued to increase." (v. 31) Even Saul, the church's worst persecutor, became a Christian evangelist and gained power, "But Saul kept increasing in strength and confounding the Jews who lived at Damascus by proving that this Jesus is the Christ." (v. 22) Today's Bible passage reveals that Christianity had also reached the city of Joppa, where a woman disciple named Dorcas had died. The disciples in Joppa had heard that the Apostle Peter was staying in Lydda, a neighboring community, and had recently healed a paralyzed man. They sent two men to implore him to come to Joppa, which he did. He came and raised Dorcas from the dead, which became known all over Joppa causing many others to believe in the Lord. Who was this woman named Dorcas?

Dorcas was a disciple. She was a sinner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received the Holy Spirit. The Bible tells us, "Now in Joppa there was disciple named Tabitha (which translated in Greek is called Dorcas); this woman was abounding with deeds of kindness and charity which she continually did." (v. 36) She practiced her faith, so that her life reflected Jesus to others. She was obviously dedicated to Christ because her actions of kindness and charity were continual. The fruit of the spirit was evident in her life. It was a testimony, not an empty profession. Others saw Christ in her. The widows present at her death showed Peter "all the tunics and garments that Dorcas used to make while she was with them." (v. 39) Truly her faith was living and bearing fruit to others. Her concern for others revealed that her faith was alive. Through her good works she showed others Christ's love, and between God and her she always made good works. Ephesians 2:8-10 say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Dorcas' good works came from knowing Jesus, and like Dorcas, we also should live and work for the glory of God, not for fame and fortune. Matthew 5:16 says,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Wherever we live and work our light should always show Jesus Christ, not our pride. We are new creatures destined for heaven. Our old prideful and sinful nature has changed,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Dorcas was a diligent worker. The Bible says, "this woman was abounding with deeds of kindness and charity which she continually did." (v. 36) She was a busy woman who made tunics and garments for other people. Her efforts did not just focus on her kids and family. Her outreach extended beyond home, and not just once and awhile but continually. She saw people as God sees them. She understood that others were in need of His love. Her hands became the hands of the Lord to those she touched and provided for. Her hands were witnessing hands that cared for the destitute and ministered to them in love. Dorcas was full of good works, and the mercy of Christ was demonstrated through her. The needy would surely feel her loss.

Dorcas was delivered from death. Peter approached her dead body, sent everyone else away, "and knelt down and prayed, and turning to the body, he said, 'Tabitha, arise.' And she opened her eyes, and when she saw Peter, she sat up. And he gave her his hand and raised her up; and calling the saints and widows, he presented her alive." (vv. 40-41) The other disciples washed her body, but they did not prepare it for the grave. When they heard that Peter was near; they sent for him because their faith was strong. Peter had experience in resurrection. He witnessed Jesus raise Lazarus,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The man who had die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wrappings, and his face was wrapped around with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Jn. 11:43-44) Peter prayed with faith, the saints believed with faith, and Dorcas arose from death.

My dear friends, Dorcas witnessed the saving power and compassion of Christ. Do your deeds witness of Christ's love and compassion for all? Is your faith continual? Do you practice it every day or just during worship services or only when it is convenient? Look at yourself. Do your eyes see things as God sees them? Are your hands moving as Jesus' hands move? I am seriously asking you right now, ARE YOU A DISCIPLE OF CHRIST? The Holy Spirit wants to control your life, please believe in Christ and let it be. Amen. 

여제자 도르가

(36) **읍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40)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 **온 읍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 **베드로가 읍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9:36~43)



김성환 목사

오순절 성령강림 후 초대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부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 수는 수천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근방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울조차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2절) 본문을 보면 기독교가 읍바라는 곳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인물은 읍바에서 죽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읍바의 제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근처의 룻다에 머물면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읍바로 급히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곧바로 달려온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려냈고 이 소식이 읍바 온 지역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르가는 제자이다

도르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적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읍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6절)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르가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선행과 구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녀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능력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보여주었습니다. (39절) 진실로 그녀의 믿음은 살아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각별한 관심은 도르가의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행을 통해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에베소서 2:8-10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르가의 선행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도르가처럼 우리도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16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에 살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빛은 우리의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만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 성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도르가는 신실한 일꾼이다

도르가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6절) 그녀는 여러 사람들에게 속옷과 겹옷을 만들어 주었던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가족에게만 온 정성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가족의 율타리를 넘어서 멀리까지 뻗어나갔고, 이따금씩 행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도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배운 온정과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증인의 손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르가가 갑자기 죽었을 때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도르가는 부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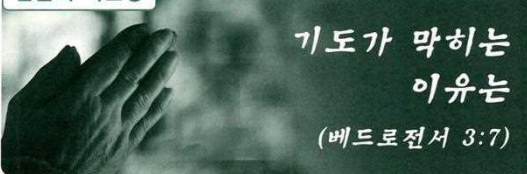
도르가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그녀의 시신 앞에 다가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0~41절) 읍바의 제자들은 죽은 그녀의 몸을 씻었지만 장사지낼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와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축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43~44) 베드로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성도들은 그녀가 살아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르가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르가는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공물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물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을 실천하십니까? 단지 예배를 드릴 때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만 행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을 따라 움직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부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

말씀과 기도 ①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3:7)



베드로는 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한다. 특히 외모를 치장하는 데만 빠져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고 있다. (벧전 3:13~4) 바로 기도이다. (벧전 3:12) 믿음으로 살아가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벧전 3:14,17)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맡기며 기도해야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벧전 3:7)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요 14:14 : 요일 3:21 : 대하 7:14)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이를 생각지 않는 자들 자신의 의로운 일, 책임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기도가 막히게 된다.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3:7) 아내를 존경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성령은 분별히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 (엡 5:25,28) 그레아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자들 죄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게 된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막 11:25) 기독교에는 용서와 은총의 진리가 있다. 이것을 용서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골 3:13)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위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약 1:6~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레아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손을 펼 수 있다. (답전 2:8) 믿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한다. (막 11:23)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는 막히지 않는다. (마 21:22 : 히 11:6)

다른 연약한 자들 돌보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된다. (잠 21:13)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일 3:17) 말 구원에서 나신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 가서 만나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힘 있는 자만을 찾고 있지 않은가? (눅 10:31~32)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마음에 우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인자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돌이켜 죄악의 결립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겔 14:3)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 (호 4:17)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우상이다.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일 5:21)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죄를 회개치 아니한 자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여호와와 손을 얹어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1~2)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시 66:18)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자신이 살아 있는 자들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약 4:3) 욕심의 정욕, 안락의 정욕, 이성의 자람은 항상 자기 부인을 못하게 막는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레아만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 (요일 5:14)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은총을 입은 신자는 창조주의 교제가 막혀서는 안 된다.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내를 생각지 않고, 용서가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마음에 우상을 가진 채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히게 된다. 십자가를 버리랴. 툭툭쳐지려 말고 복음 앞에 단숨에 달려라! “주여! 죄인의 눈, 귀, 입을 열어 오직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오.” (찬 366장)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새가족양육부 3월 수료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 불교 가정에서 55년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다. 어느 날 문득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인도자도 없이 집에서 가까운 중현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양육 받게 되었습다. 그동안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살았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다. 신약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을 때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다. 하지만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었습다. (은혜성)

♥ 안수집사님의 전도로 중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담배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다.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다. (김정수)

♥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다. 예수님은 진정한 아버지시며 제가 진심으로 믿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따듯함과 가르침을 내려 주십니다. 교회에 오면 화목한 가운데 마음이 따듯해짐을 느낍니다. 예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주

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담대해졌습다. (김정숙)

♥ 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다. 교회생활을 통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가 되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다. (최준지)

♥ 저의 소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다.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해 주셨습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진리를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다. 앞으로 회개하는 삶 가운데 저의 일생을 참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황승용)

♥ 어느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나왔습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셨고 저를 구원에 주셨습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십자가는 분명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잘못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정승영)

♥ 안수집사님과 저의 동생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의 구원이 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회로를 교회생활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 감사함과 은유함이 넘치게 되었습다. (이정숙)

♥ 역상동에서 이사 오면서 어느 집사님의 소개로 중현교회에 오게 되었습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나를 구원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다. 그로 인해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다.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었고,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다. 이제는 배움과 믿음 때 기도하여 예수님께 기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명자)

(박진희)

회개와 감사

청년1부 1팀

모두 회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고 선교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 (윤해균 집사)

✦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 그분의 살아 계심은 내게 힘이며 능력이며 방패이고 신성임을 깨닫게 하셨다. (이승근)

✦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무척 속상하고 답답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님이 그 빈 공간에 채워 주시기를 기도드렸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 (백진선)

✦ 주께서 예비하신 선교사역은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소생시키는

사역이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감사드렸다. (백수현)

✦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 아왔다.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세상, 이웃을 바라보게 되자 복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환주)

✦ 8일이라는 짧은 사역기간이었지만 팀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큰 분열 없이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사랑과 배려와 화합으로 사역을 잘 마무리 한 것 같아 감사한 마음뿐이다. 사역초반에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셨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하셨다. 내가 사역에 임하는 순서가 틀렸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다. 간절함으로도 먼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시련과 고통을 겪고서야 뒤늦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이복직)

✦ 다섯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처음 그 아이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행지 담담한 눈물로 바라보는 것이 눈에 띄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뿌듯한 반응이었지만 주님이 이 어린 영혼을 복음의 착박한 땅 가운데 복음의 불로로 사용하실 것 같다는 확신에 아이를 품어 안고, 복음을 들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 아이의 두 손을 모으게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해보라고 했다. 곧바로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우리의 기도에도 한 마음과 한 입

으로 함께 동역했음을 느껴 아주 감격스럽고 은혜로웠다. (김정현)

✦ 공안이 쫓아다니는 어려움을 만나고 함께하던 운전기사가 사라지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니 막막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되었다. 우리의 감추어진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리놓게 되었다. 그대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정결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 (이혜선)

기 간	팀	팀 장
3월 27일(목)~ 4월 4일(금)	21교구 2지역	임재형
3월 27일(목)~ 4월 4일(금)	24교구 2지역	김홍기
3월 27일(목)~ 4월 4일(금)	24교구 5지역	허형철

기 간	팀	팀 장
4월 1일(목)~ 4월 9일(수)	20교구 6지역	이근호

교회탐방 에바다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손으로 전하는 복음

매주일 제2교육관 1층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하다. 농아인(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에바다부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건장한 귀로도 듣지 못하는 영적 음성들을 듣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다.

에바다부는?

농아인(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88년 10월에 처음으로 에바다부가 조직되었습니다. (백인기 목사, 지도)

현재에는 제2교육관 1층에 마련된 에바다부실에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황영민 교사)

에바다부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에는 학생(초·중·고) 중심, 오후 1시에는 성인(청년부~노년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연례별로 나눈 빈에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성욱 교사)

작게는 다섯 살 난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넘으신 이르기까지 드리는 예배와 성경공부는 소와로만 진행됩니다. (황영민 교사)

케다나 스크린을 통해서 찬양가사와 설교내용 등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김 찬, 중등부)

예배를 통한 은혜는?

저는 5살 때 부터 에바다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정유림, 초등부)

아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씀이 이해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정말 좋아요. 오늘 예배 중에 드렸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79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예요. (류숙오, 중등부)

말씀이 많이 좋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이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과 확신을 얻습니다. (신성철, 청년부)

수화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보화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노 지은, 청년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모릅니다. (문성욱 교사)



장애가 있음에도 남치는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할 뿐 활동하는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성철)

수화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나와 같은 농아인에게는 수화를 통해서 전도하고, 건청임(반장애인)에게는 그림이나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노지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게 비해서 세상이 주는 유혹을 덜 받아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어요. (류숙오)

찬양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있어요. 특히 "예수께로 가"면(찬 565절)이 참 좋아요. (정유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많이 좋아요. (김 찬)

교사로서 섬기며 누리는 은혜는?

사회복지사라는 저의 직업도 그렇고,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지금 대략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교사와 학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동질감을 갖습니다. 제가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황영민)

교회에 처음 나온 학생은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문성욱)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대로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노지은)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직하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것입니다. (신성철)

소원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을 사람들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황영민 교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 되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문성욱 교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김 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와 같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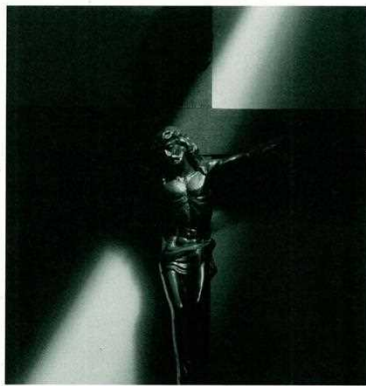
4월 27일 주일에 새친구 전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화교실이 매주일 진행 중입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백인기 목사)

주말3부예배(11:00)뿐만 아니라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찬양집회도 놓아놓지 마세요. 예배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요. 영적 생활과도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중한인 이들은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지 천국왕국들이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마 23:38)

수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에바다부 예배가 조금만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에바다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요. 영적 생활과도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중한인 이들은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지 천국왕국들이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마 23:38)

(편진국)

십자가 어린 양 예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롬 5:8) 끝없는 단장에서 일어나기 싫은 유혹을 물리치고 교구식들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부지런히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참석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이기시던 예수님을 묵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저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을, 순진한 아이처럼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을……, 지구 도망치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다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메시지가 화살처럼 날아와 나의 심령에 꽂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무저런 심령의 문과 눈이 열리고 나를 감싸고 있던 죄악들을 다 깨뜨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간인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돌아오심을 반대하는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비겁함, 깻새마네 동산에서 떠날 것을 예상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 앞에서 맹언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잠에 빠져버렸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나를 발견했다. 그 큰 짐을 지고 피로워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지 묻는 철 없음 또한 나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부끄러움과 죄책감에만 빠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과 피로 기억하길 원하시는 끝없는 사랑과 위대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입술로 주님을 못 바르고도 들었던 군중들처럼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게 될 그 날만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구원과 신령과 믿음의 보존되어지고 있음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믿음과 모범을 배우라."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기 위해 이 새벽 미명에 나를 깨워 주셨음을 알게 해 주셨다.

"십자가 어린 양 예수를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별한 다름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십자가의 잔혹함을 외면치 않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 주소서. 주님이 수난당하실 때에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치던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불쌍히 주시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따르며 자기부인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소서. 자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금순(권사, 2교구)

내가 너를 사랑한다

5년 전, 내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남자들도 저 정도면 쓰러졌을 텐데 여자가 보람이 아니야" 등 말들이 많았다. 난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으로 배운 것들이 악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망했던가, 취하지 않은 것까지 물어 주게 되었다고. 나 지렁이와 같은 존재, 즉 지나가다 이리저리 차이는 틀이 되어버렸다. 멀리, 조롱, 천대, 핍박은 어느새 내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이것들을 때어내고 싶어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섬기던 교회를 떠나 파멸이 성도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 속에서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

성경을 읽어 가던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부분을 읽게 되었다. 3년을 가르친 그 제자들이 배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세 번 부인했던 모습.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이고 참 밍으며 채찍질하던 모습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때의 참혹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생각하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그 멀리서 조롱과 천대를 다 받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40년을 넘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2008년 첫 주부터 천천교회에 나오려고 결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앉았다. 그때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신기하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주일3부예배를 드렸다. 설교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말씀을 묵사념이 전파했다. 주님의 성령은 놀라웠다. 묵사념은 설교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이 분명하다.

오늘은 우리 교구가 주어진 새벽기도회 날이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각자가 기도한다. 묵사념은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셔서 열줄에 앉아서 통성기도 하시고 성도들은 묵상기도 중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통성기도가 잘 안 된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라고 계속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줄까?"라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졌고, "내 생명과 너를 바를 정도로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난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찬송가 315장을 불렀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 나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것이다.

(이화숙(성도, 20교구))

촉촉이 내린 봄비와 더불어 나는 십자가의 사랑 봄맞이 교회 환경정리

반가운 봄비가 내렸던 지난 3월 29일 토요일 오전, 교회 전체가 시끌시끌했다. 봄을 맞아 겨우내 켜든 때를 청소하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 때문이었다. 이들은 본당, 제1·2 교육관, 선교관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닦아내었고, 화단에는 봄향기로 가득한 꽃을 심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봉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했다.



임금순(권사, 2교구)

피택자 명단 / 교구 좌석변경

제41대 장로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호일	24	90-648	추병창	10	82-700	최세진	2	95-232
김홍기	24	81-389	박광식	6	80-591	류기명	14	82-415
박성명	16	81-171	이상복	8	89-230	지규성	6	83-311
박종윤	20	79-159						

제21대 안수집사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정신	18	861	서상근	20	2601	권종철	15	86-141
신동수	4	89-1229	백승환	24	94-169	박문선	23	89-1099
이도현	5	90-330	오형식	8	94-421	김준광	14	91-131
최인규	22	92-1265	최현구	13	2002-0286	구승희	16	81-1022
김주현	15	86-783	장승길	2	85-531	백재홍	12	80-797
이연범	7	79-601	홍선기	4	98-331	이찬재	3	89-596
전귀환	9	92-1628	유형근	15	91-532	김정배	6	95-8
신현철	10	90-964	이호식	22	88-140	송종석	14	93-211
신현욱	11	79-156	김영희	20	96-64	박대균	10	97-356
박형식	19	99-461						

제49대 권사 피택자(가나다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경순	15	97-70	강 순	14	79-52	강 욱	1	91-1009
강준자	2	88-233	고옥영	23	97-686	고은희	1	89-1483
김경숙	2	88-53	김동화	22	89-629	김명선	15	89-746
김세향	16	87-665	김수영	11	413	김영란	3	97-672
김영희	21	83-274	김옥자	17	90-145	김용원	8	85-172
김위자	21	85-931	김유순	24	80-262	김인덕	7	87-833
김정옥	18	89-18	김종수	8	79-182	김향신	2	85-531
남현숙	10	98-640	박경애	24	89-181	박명자	13	95-191
박연옥	12	88-590	박은숙	6	89-1275	박희수	5	96-327
설분식	8	2002-0239	손명민	9	1381	신명주	1	2002-0344
신화화	9	96-450	오영선	10	80-758	왕순화	24	94-169
이경옥	20	82-218	이름이	20	84-388	이미애	5	84-230
이미주	14	94-1957	이수애	19	92-326	이옥자	13	84-233
이재숙	21	95-680	이정희	7	91-68	이현옥	17	82-405
장보윤	23	89-664	전명식	24	79-446	장미순	16	93-946
정인선	12	81-16	조숙애	19	93-151	조연이	6	82-69
조영희	4	95-594	지영순	12	798	채일숙	18	93-1588
홍점순	14	95-525	황이지	11	91-958	황지희	6	90-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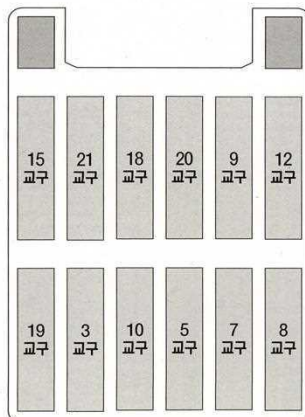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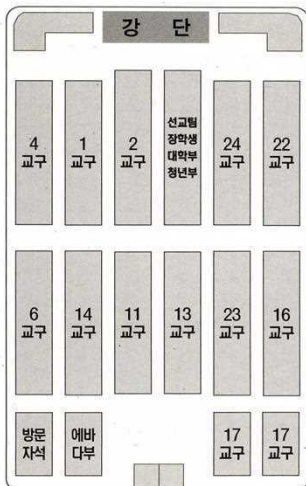
*피택자(장로 피택자는 부부동반)는 오늘 찬양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피택자교육 개강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찬양집회 교구 좌석변경

*4월 11일 (금요일)부터 시행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3층 좌석 배치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47	박종태	18	청년1부	오형철(5)
548	김종태	8	청년2부	구승희(16)
549	박은희	1	청년2부	윤선환(1)
550	김성례	21	청년1부	강형열(21)
551	정현종	17	청년2부	장경수(16)
552	김소울	3	장년1부	함희정(1)
553	박경희	23	장년1부	박규연(23)
554	박귀원	7	청년3부	정호진(7)
555	문창욱	3	소망부	정호진(7)
556	박동익	20	청년1부	김영희(20)
557	이유진	8	소년부	권민지(8)
558	이영준	8	초등부	권민지(8)
559	이준하	1	청년1부	최윤미(8)
560	유지은	2	청년1부	홍철순(14)
561	정성환	11	청년1부	이정희(7)
562	유연주	1	청년2부	최종환(5)
563	최정원	13	대학부	최근준(13)
564	염근성	11	청년2부	최준호(20)
565	조한나	12	청년1부	신원숙(16)
566	신 희	23	청년1부	김남준(19)
567	배순자	20	청년3부	이희자(7)
568	임순자	16	청년2부	황명하(13)
569	전영희	7	청년2부	김영숙(7)
570	박용국	14	청년3부	김원자(14)
571	남정민	22	청년1부	라온원(1)
572	김재민	11	청년1부	황이지(11)
573	이혜연	24	청년2부	이혜경(5)
574	김봉자	19	청년3부	김영숙(17)
575	이미은	21	청년2부	정순옥(21)
576	김유희	13	청년1부	최승민(4)

* 순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	강광국 출생 신라시대	유인숙 검정선	홍순애 검정선	이옥주 검정선
박	장승근 출생 고려시대	김영민 검정선	최문준 천연의	김경자 검정선
전	신진갑 출생 조선시대	김정희 검정선	이복남 유연의	한지현 검정선
정	김태식 출생 조선시대	김영미 검정선	이복춘 천연의	이혜숙 검정선
수	김태석 출생 대륙부동	황순란 검정선	김정훈 검정선	

■ 전임하지 않음 ■ 서운성 김원섭

■ 전임부대표 겸소언 ■ 전임부대표 장인희 노은영

전 신 교 사 송호연